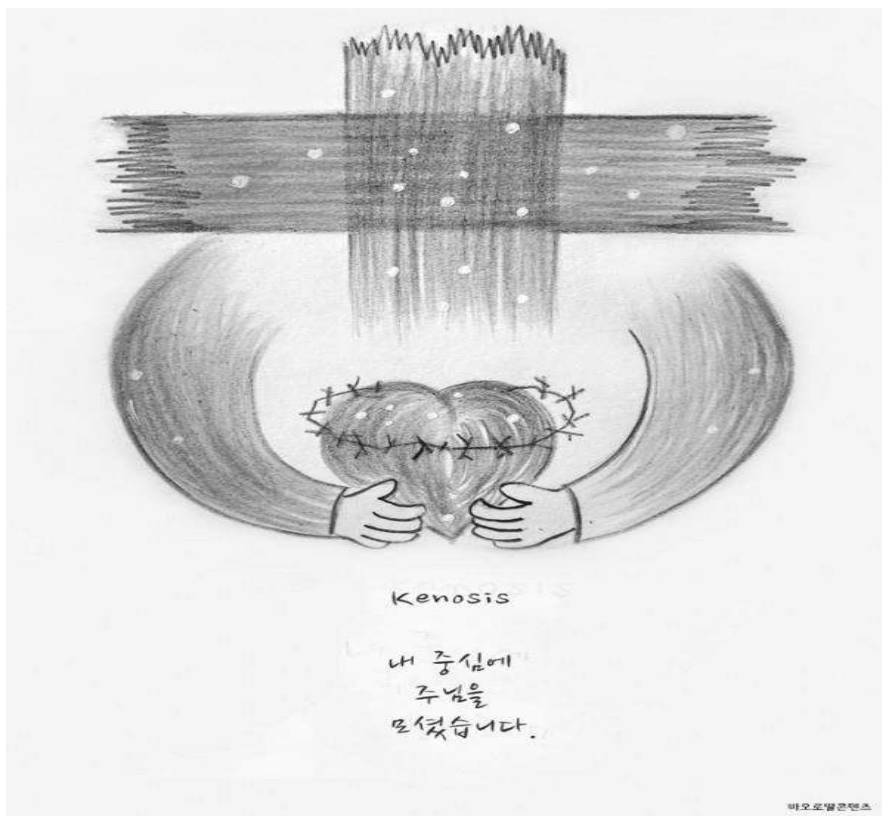


만남

2024년 02월
통권 22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앙 나눔	-----	3
바티칸 소식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	7
영적 상담	-----	10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	-----	12
축일을 축하합니다	-----	14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5
공동체 소식	-----	16
활동단체 모임 안내	-----	17
월중 행사표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말기의 병자들을 위하여

생의 말기에 있는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적 측면에서도 인간적 측면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보살핌과 동반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하느님의 씨 (최영숙 데레사)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 1서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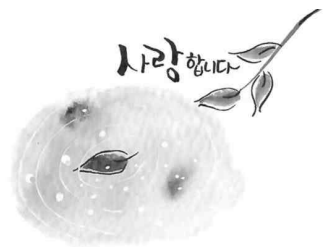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흙의 먼지로 빚어 만드시어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남자의 생명체가 되었고
갈빃대로 여자를 만들어 축복하니 하느님의 씨가 됐네!

하늘의 별들처럼 수가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여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쌍둥이도 똑같은 이 없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하느님신비의 작품이며 기적인지를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었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성령으로 축복을 내려주시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거룩한 천상의 상속권을 주시며
몸소 십자가희생양이 되시어 영원생명으로 구원하셨네!

말씀마다 진리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열매로 맺어가고
생명마다 사랑의 씨앗이 되어 만물이 대대로 번식하며
신앙마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 찬미와 감사로 꽃피우고
기도마다 마음의 씨앗이 되어 성모님 손수로 거두시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뿌려주신 씨들이 땅기운을 받아
하늘에서 촉촉이 적시는 이슬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사계절의 손길로 햇빛과 빗물과 바람에 익은 열매들을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의 결실로 거둬 감사축제 드리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
(2024년 2월 11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관계의 치유를 통한 아픈 이들의 치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 참조). 한처음부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친교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우리 삶은 관계와 우정과 주고받는 사랑의 연결망을 통하여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친교의 계획이 인간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기에, 우리는 버림받음과 고독에 대한 체험을 무언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따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시기에 몹시 외로웠던 모든 이를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방문객을 맞이할 수 없었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격리 병동에 갇혀 지낸 많은 간호사, 의사,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홀로 임종의 시간을 맞아야 했던 모든 사람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전쟁과 그 비참한 결과로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립감에 함께합니다. 전쟁은 가장 끔찍한 사회 병폐이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또한 평화와 더 많은 자원을 누리는 나라에서조차, 노년과 질병의 시기를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버림받는 상황으로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은 주로 개인주의 문화, 곧 온갖 대가를 치르고 얻는 생산성을 찬양하고, 효율성의 신화를 조장하며, 개개인이 더 이상 보조를 맞출 힘이 없을 때에는 무관심해지고 냉혹해지기까지 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면 개인주의

문화는 버리는 문화가 됩니다. 버리는 문화에서 “사람은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18항).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필요에 중점을 두지 않는 어떤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한 기본권과 의료 혜택의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과 자원을 늘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료 혜택을 단지 의사와 환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치료의 연대’를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도 취약한 이들이 버림받고 고립되는 데에 일조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 초기에 이 말씀을 하시어 인류를 위한 당신 계획의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서서히 스며들어 의심과 균열과 분열에 이어 결국 고립을 야기하고 마는 죄의 치명적인 상처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과 그의 모든 관계를, 곧 사람이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과, 피조물과 맺는 모든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고립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사랑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가 삶의 모든 중요한 여정에서 혼자라는 숨 막히는 느낌을 체험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질병에 필요한 돌봄의 첫 번째 형태는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자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느님과, 다른 이들 곧 가족 구성원과 친구와 의료인과, 피조물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맺는 모든 관계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표상을 바라봅시다(루카 10,25-37 참조). 걸음을 늦추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역량을, 고통받고 있는 형제의 상처를 돌보는 그의 온유한 사랑을 살펴봅시다.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이는 누군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기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으며 친교와 형제애로 부름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허약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채택해야 하는 첫 번째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시적이든 만성적이든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밀감과 온유함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짐이 된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십시오. 병자들의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정신없이 바쁜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예수님의 연민 가득한 눈길을 닮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 소외되고 버림받았을 이들을 돌보시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 안에서, 특히 성찬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고독과 고립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개인주의, 무관심, 버리는 문화에 맞서 싸우고 온유와 연민의 문화를 증진하는 데에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이들, 취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관심과 사목적 염려의 중심에도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자의 치유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고 우리가 친밀감과 형제적 관계의 장인이 되게 도와주시도록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4년 1월 10일

프란치스코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르 1, 40-4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주님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청한 적이 있습니까?
- 우리는 주님과 이웃과의 약속을, 비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아무도 나병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병환자를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환자를 만지는 예수님의 손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나병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천국을 만들기도,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사랑을 베풀며 천국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고 부수고 움켜쥐고 미워하며 지옥을 만듭니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시편 90,17)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6장 “이끌어 주소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질문

Q.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화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해서 아주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커녕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기 일쑤입니다. 전에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더니, 그분은 ‘나를 싫어하느냐?’ ‘평소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난리를 쳐서 대화 분위기가 몹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심리치료에선 사람의 성격을 ‘성격장애’와 ‘신경증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격장애란 말 그대로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성격장애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가진 생각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폐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병적인 자기망상 안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성격장애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병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심한 집착을 가져서 즉,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아상이 자랑스럽거나(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반대로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상관없이 ‘자아’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온종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다가 짜증 내다가 하는 거울 공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심리치료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격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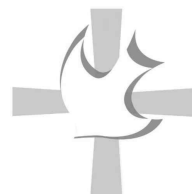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일회용 변기통쯤으로 여기기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마디로 ‘진상’이지요.

어느 본당 신부가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려니 십자가의 주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부는 “주님, 어쩐 일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하고 물었지요. 예수님은 “방금 기도하고 나간 놈 때문에 그런다” 하셨습니다. 신부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인데, 그놈은 날 보고 샷대질을 하면서 ‘주님이라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항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 말할라치면 똥 싸고 도망치는 강아지처럼 나가버려서 그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자는 주님께서도 어찌지 못하신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 나이 돼 봐야 알아’ 하며 젊은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충고하면서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노인 진상’ 혹은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어떤 노인분이 젊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준다고 하시더랍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나타난 성격장애자들도 문제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라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요.



♥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5주기를 맞아서 (김진호 프란치스코)

오늘도 어김없이 또 날이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아침을 만나면서 나는 제일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성호경을 그으며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거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찾아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확인한다.

우리 집 달력에는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달력을 바라보는 순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같이 느껴졌다.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는 없었는데, 추기경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이 생각났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는 가끔씩 생각나는 말씀이었다. 생각이 난다. 15년 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러니까 2009년 2월16일 당년 88세의 연세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많은 슬픔과 아쉬움과 함께 나라가 떠들썩했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던 날은 매섭게 추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성당 인근 거리마다 골목마다 조문객들의 물결을 상상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뻘뻘해 온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기업 총수들과 사회단체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국민이 명동성당에서부터 남산터널까지 긴 줄을 이어 분향소까지는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11도의 칼날 같은 추위를 견디면서도 조문객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오는 2월 16일이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15주기가 되는 날인데 우연히 내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탈하시고 겸손하시며 상냥하시고 인자하시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떤 모임에 가시면 노사연의 만남과 ‘애모’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시던 추기경님의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생각난다.

추기경님께서서는 1921년 김영섭(요셉) 아버님과 서중하(마르티나) 어머니의 5남 3녀 중 막내로 경상북도 군위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추기경님께서서는 1951년도에 사제품을 받으시고, 안동성당 주임 신부님을 시작으로 53년 대구교구에서 55년 김천성당 주임신부 겸 성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으로 계시다가 독일 뮌스터에서 유학을 마치고, 66년 마산 교구장님으로 68년 서울 대교구장님으로 1년 후 6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기경님으로 선임되시어 온 국민과 천주교인들의 축하와 대환영을 받으셨다. 추기경님께서서는 한국 순교자들의 은총으로 자신이 추기경이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세계 134분의 추기경님 중에서 제일 젊으신 추기경님이셨다.

젊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언제나 용감하고 거룩하신 참 지도자이셨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져만 가는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오늘 저를 불러주셨다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족한 글로나마 기억해 보는 추억의 시간을 가져본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1997년 8월17일 추기경님께서 직접 전화로 저녁 초대를 해 주셨던 영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

오늘 추기경님의 선종 15주기를 맞아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평화의 안식과 천상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안스카	이경규	10일	스콜라스티카	조영희
3일	블라시아	김희자	16일	율리안나	서영주
5일	아가타	문경영	18일	마리안나	한말조
7일	리차드	박춘실	24일	아델라	손지은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요안나	이계선(H)	9일	알렉산더	문지훈(H)
4일	요안나	이순자(H)	10일	스콜라스티카	이정자(H) 오윤숙(H)
5일	아가타	허윤선(O) 정금선(B)	16일	율리안나	송윤아(H) 이경의(H)

❖ 2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4일	431	221	169	19
11일	416	210	436	401
18일	115	342	176	116
25일	117	512	180	118

❖ 2월 전례 봉사 ❖

	독 서	제 병 봉 헌	해 설 자	복 사	커피 봉사
4일	이경규(안스가) 유곡지(아그네스)	김점선(실비아) 육종인(베로니카)	허선애 (임마누엘라)	박요나(요나) 이동빈(루카스)	3구역
11일	요셉마리아회		허선애 (임마누엘라)	추이솔(빈첸시오) 이동윤(엘리아스)	요셉 마리아회
18일	비르지타회	박종래(바오로) 최영자(파올라)	박종래 (바오로)	박노아(노아) 박요나(요나)	4구역
25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 나)	박종래 (바오로)	이동빈(루카스) 이동윤(엘리아스)	1구역

♥ 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교구 계좌 입금(10)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욱, 백정선, 이공중, 이정은, 현영애, 손수희, 김유석, 이호준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자진헌납금(6)

이정수, 최순남, 이종하, 이경란, 조영희, 이현묵

✿ 공동체 계좌 입금(7)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강신행, 신유경, 이경규, 김원자, 박경원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3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6.567,78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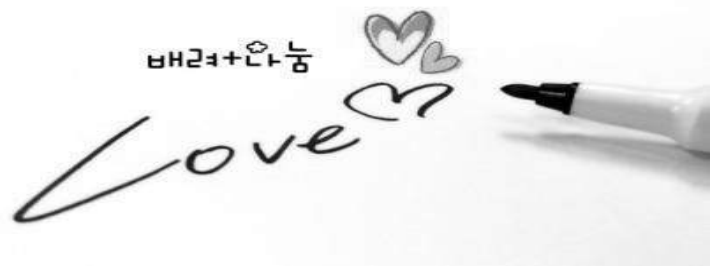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월 2일(금)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날,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2월 4일 주일미사 때 초 축복식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쓸 초는 미리 신청하거나, 주일미사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2월 11일(일)에는 설 합동위령미사를 15시에 예수성심성당에서 봉헌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사 후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3. 2월 14일 수요일은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10시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2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3일 브레멘, 10일 오스나브뤼크, 17일 하노버
24일 브레멘(3월 브레멘 미사 이동)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성 가 정 학 교		매월 셋째 주일 14시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11월 - 3월 주일 13시30분 ~ 14시30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황혜인(율리아)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허길조(안드레아스)	
			총무	심선옥(도미니카)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2 월 행 사 표

2024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축 일	기관·단체 행사	비 고
1	목			
2	금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故차기병(F.하비에르) 신부 36주기 금육
3	토		브레멘	이형수 몬시뇰
4	일	연중 제5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입춘
5	월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6	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故박두환(베네딕토) 신부 29주기
7	수			임태근 신부 故김민수(유스티노) 신부 11주기
8	목			
9	금		2구역 소공동체 모임	금육
10	토		오스나브뤼크	설
11	일	연중 제6주일 세계 병자의 날	비르지타회 월례회	
12	월			대체공휴일
13	화		꾸리아	
14	수	재의 수요일		금육과 단식
15	목	교구설정 58주년 기념일		
16	금			금육
17	토		하노버	
18	일	사순 제1주일	성가정 학교 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故김재석(요셉) 신부 37주기
19	월			우수
20	화			
21	수			이수호 신부
22	목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배진구, 여인석 신부
23	금			금육
24	토		브레멘	
25	일	사순 제2주일	사목회	
26	월			
27	화			고태경 신부
28	수		연령회 월례회	
29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공동체 주임신부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2. Etage)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 장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0 410978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Antonius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